

Vol. 08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6. 02. 22.

■ 농정이슈

'16년 지자체별 농식품 수출확대 계획 등

■ 정책브리핑

투자활성화 대책-농림어업 부문 등

■ 연구지원

2015년 말산업 실태조사



대외협력실

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

농식품부지자체, '16년 농식품 수출확대계획 공유

- [농식품부, 「지자체 합동 농식품 수출비상점검 TF」 회의 개최, 2.16.] 농식품 수출비상점검 TF...정부지자체·농진청·산림청 등과의 협업을 통한 수출확대를 위해 '15.7월 구성,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 함께 목표 공유하고 협업하여 효율 극대화 노력

■ 지자체별 수출확대 계획 ■

지역	내용
경기도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주요 할랄 관련 국가 대상 판촉전 개최 등
강원도	- 해외 상설매장 운영 활성화(미국·캐나다) - 도내 수출기업 협의체 지속 육성
충청북도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중국이슬람권 시장 공략 및 유기농식품 수출기반 구축 마케팅 강화
충청남도	- 인삼에 대해 말레이시아·홍콩·베이징 등 주력시장 집중 공략 - 6차산업 제품 중심 수출유망상품 지속 발굴
전라북도	- 쌀삼계탕(중국)·딸기(동남아) 등에 대한 해외 홍보·판촉 강화 등
전라남도	- 수출기업 자금지원 위해 수출기업 특례보증, 수출보험 지원 강화 - 中 통관애로 해소 위한 매뉴얼 제작·배포
경상북도	- 품목별 '수출 진흥기금' 운용을 통해 전략품목 지원 강화 - 수출현장 간담회 개최
경상남도	- 우수 가공식품 수출기반 마련 위한 시설지원 확대 - 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과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으로 해외시장 개척
제주특별자치도	- 한중 FTA 활용한 대중수출확대 및 일본시장 회복 위해 中바이어 초청행사, 日현지 판촉(BUY-JEJU) 등 추진

자료: 한국농업신문(2016.02.16.) / 아시아경제·위클리오늘·전북일보·전업농신문·중부매일(2016.02.17.)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_「농식품부지자체, '16년 농식품 수출확대계획 공유」(2016.02.16.)

㉔ 농정이슈

□ 농식품수출 기반 조성을 위한 농식품펀드 확대

- [농식품부, '16년 농식품모태펀드 운용계획 및 제도개선안 발표, 2.17.] 특수펀드 700억 원, 일반펀드 660억 원으로 총 1,360억 원 규모 농식품펀드 조성·지원

농식품모태펀드(母胎펀드, Fund of Funds)

-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회사에 출자하기 위해 정부재정이나 기금 등으로 조성한 펀드
- 농림수산물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림수산물투자조합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

- △특수펀드: 스마트팜(500억 원), 농식품수출(100), 6차산업(100), △일반펀드: 농림축산식품(660), 스마트팜 신규 결성으로 ICT 기반 농업의 과학화와 첨단 산업화의 토대 마련 지원
- (농식품펀드 사업추진절차) ① 정부재정으로 농식품모태펀드 조성 → ② 모태펀드와 민간이 매칭펀드(농식품투자조합) 결성 → ③ 농식품경영체에 투자 → ④ 사후관리 → ⑤ 투자금 회수 → ⑥ 재투자
- (제도개선) 투자 활성화 촉진될 수 있도록 투자관리 기준 개선...의무출자비율, 우선손실충당금비율 및 기준수익률 완화

- ※ 의무출자비율 : 현행) 일반펀드 5%, 특수펀드 8% → 개선) 일반·특수펀드 5%
- ※ 우선손실충당금비율 : 현행) 일반펀드 3%, 특수펀드 5% → 개선) 일반·특수펀드 3%
- ※ 기준수익률 : 현행) 일반펀드 7%, 특수펀드 3% → 개선) 일반펀드 5%, 특수펀드 2%

자료: 뉴스투데이뉴스,머니투데이메디컬투데이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연합뉴스이투데이전자신문 헤럴드경제(2016.02.17.) / 대전일보(2016.02.18.)

참고: 농식품부 보도자료_「스마트팜, 6차산업, 농식품수출 기반 조성을 위한 농식품펀드 확대」(2016.02.17.)

□ 세계기상기구 엘니뇨 현황 및 전망

- [세계기상기구 엘니뇨 현황 및 전망 발표, 2.18.] 지난 1월 엘니뇨 감시구역(Nino3.4)의 해수면온도는 평년보다 2.6℃ 높은 상태로 강한 강도의 엘니뇨 지속
- 15/16 엘니뇨는 '50년 이래 강한 강도로 발달했던 97/98, 82/83 엘니뇨 수준에 해당
 - ※ OISST2 자료기준, 11월~1월 기간 엘니뇨 강도 2015/16 +29℃, 1997/98 +27℃, 1982/83 +26℃
- 강한 엘니뇨는 올해 봄철 전반까지 지속, 이후 점차 약화되어 올 여름철엔 정상상태가 될 가능성 높은 것으로 예측

자료: KBSYTN노컷뉴스뉴스,매일경제머니투데이미디어펜연합뉴스이데일리(2016.02.18.) / 국제뉴스(2016.02.19.)

참고: 기상청 보도자료_「세계기상기구 엘니뇨 현황 및 전망(2.18.발표)」(2016.02.18.)

㉔ 농정이슈

□ 가뭄 피해 최소화 위한 선제적 가뭄관리

- [국민안전처,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정보 생산기술현황 및 다부처 공동 대응 방안 심포지엄」 개최, 2.17.] 가뭄 대응이 개별 부처차원에서 추진되어 통합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부처 협력체계 구축 추진**



- **(추진체계)** △가뭄관리 연계운영플랫폼구축(안전처, 국토부), △메가가뭄 예측대응전략 (안전처), △**농업농촌 가뭄관리 통합시스템**(농식품부), △수문학적 가뭄 및 갈수 예측 고도화 및 수자원 운영기술(국토부), △중장기 기상학적 가뭄감사.전망기술(기상청)
- **(활용계획)** △정부합동 제작한 **가뭄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연계**하여 가뭄단계별 부처별 역할에 기술적 활용*, △ICT 및 수자원확보 신기술 분야의 **민간기업 참여 유도**
 - ※ (평상시) 가뭄전망 및 가뭄재해 골든타임을 설정하고, 부처별 맞춤형 가뭄정보 제공
 - ※ (재난시) 수자원시설 운영방안 및 용수공급대책을 제시하고 범부처 의사결정 지원

자료: 건설경제신문뉴시스이투데이포커스뉴스헤럴드경제(2016.02.16.) / 국제뉴스서울신문환경일보(2016.02.17.)

참고: 국민안전처 보도자료_「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가뭄관리」(2016.02.17.)

㉔ 농정이슈

□ ‘농업인 월급제’ 지자체 확산

- [농민신문, 농업인 월급제 확산 관련 보도, 2.17.] 농업인 월급제가 농가 호응 속에 빠르게 확산, '13년 1월 화성 시작으로 청주, 완주, 임실, 나주로 확산 중

농업인 월급제

가을 수확기에 편중되어 있는 농업인의 소득을 농가와 농협·지자체 간 약정을 통해 매달 월급 형태로 지급, 농가 경영안정과 농촌 정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 이자비용 등은 지자체 보전

- 화성시의 경우 2015년 138농가, 14억 원 지급으로 도입 초기 대비 4배가량 증가, 작목...벼에서 채소·과수·버섯·화훼류·특용작물로 대상 확대

자료: 농민신문·전남일보(2016.02.17.)

- [김우남 후보, 농업인 월급제 국가지원 공약 제시]...현재 농업인 월급제는 법적 근거없이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운영, 농산물 가격 폭락 시 미리 받은 월급이 부채로 남는 문제, 농업인 삶의질범 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하고 이자 등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것

자료: 시사제주·제주의소리·헤드라인제주(2016.02.18.)

□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쿼터 증원 시급’ 목소리 높아

- [한국농어민신문, 외국인 근로자 쿼터 관련 보도, 2.16.]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보다 턱없이 모자라 심각한 영농인력 부족현상 우려

- (외국인 근로자 쿼터) 올해 쿼터로 6,600명+a배정, 1차 배정에서 3,833명(당초 계획 대비 293명 증원) 배정했으나, 이미 1차 배정에서 7,000여 농가 신청, 신규 배정은 1~2명이어서 2,500여 농가만 실제 배정

- 4월 2차 배정실시하나 농가에서 원하는 수준의 인력배정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

※ 대기농가 4,500여 호, 2차 배정 외국인 근로자 2,767명+a

- 외국인근로자 신청 기준 변경*으로 임차 농업인이 외국인 근로자 신청을 하기 어려운 상황

※ 외국인근로자 신청 기준: (기존) 영농규모 증명서→ (변경)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지주가 농업경영체 등록 마친 경우 임차 농업인들은 실제 농사 지어도 경영체 등록 불가

자료: 한국농어민신문(2016.02.16.)

㉔ 농정이슈

□ 농업 보조금 관련 언론 동향

- [중앙일보, “천문학적 농업지원금? 현실 안 맞는 정책에 헛돈 쓴 것” 보도, 2.16.]
김영삼 정부 시절 농업구조개선금 등으로 수십조 원 지원했으나, 농업 구조 개선이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에 쓰임, 대부분 용자형태라 지금은 빚더미, 일방적 정책은 실효성 없다
 - FTA 후속 대책의 경우도 농민과 함께 가려는 의지가 없음
 - 쌀 관세화 이후 쌀값이 바닥, 안 하는게 맞다
- [농식품부, 농가보조금 관련 설명자료 배포, 2.16.] '92년 시장개방 이후 농업·농촌 분야에 지원된 투융자 규모는 186조 원(용자 57조(31%), 보조 129조(69%))
 - 보조금 대부분은 농업·농촌에 부족한 SOC 등 기반시설과 생활환경 보완 위해 사용, 이러한 지원 통해 농업 규모화·전문화 촉진되어 경쟁력 꾸준히 제고 및 일정 수준 성과도 나타나는 중 (농가소득: '00년 2.3천만 원→'14년 3.5)
 - 해당 기간 농가부채 증가*도 사실이나 농가 자산 증가 추세** 고려 시 경쟁력 확보 위한 시설투자 확대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감안 필요
 - ※ 부채: ('95) 9,163천원 → ('00) 20,207 → ('05) 27,210 → ('10) 9,163 → ('14) 27,878
 - ※※ 자산: ('95) 158,171천원 → ('00) 159,975 → ('05) 298,178 → ('10) 372,476 → ('14) 431,823
 - 용자자금 금리 인하* 통해 농업인 부담 완화 위해 노력 중
 - ※ '15.8월부터 금리 3~4% 자금의 금리를 0.5~1%p 인하하고, 변동금리 도입 (변동금리 적용 : 3% → 1.3%, 고정금리 인하 : 3%, 4% → 2.5%, 3%)

자료: 중앙일보 (2016.02.16.)

참고: 농식품부 설명자료_「“천문학적 농업 지원금? 현실 안 맞는 정책에 헛돈 쓴 것” 중앙일보(2.16) 보도 관련 설명」(2016.02.16.)

□ 구제역 현황

- [농식품부, 충남 공주 및 천안 소재 2개 돼지농장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 발표, 2.17.] 우리나라 집중하는 백신 유형인 O type 구제역으로 확진, 지난 1월 김제 및 고창 이후 36일 만에 발생
 - (방역조치) 발생농장 3km 이내 우제류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조치 실시, 농장 내 돼지 전체 살처분(공주 956두, 천안 2,140두), 충남 공주·천안 소재 돼지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 실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효(충남과 인접한 대전, 세종 전역 대상), 충남지역 내 돼지 타지역 반출 금지 등

㉔ 농정이슈

- (향후 전망) 최근 돼지 백신항체 형성률이 69.9%(15.12월 기준)으로 '14년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국 확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

■ 그간 구제역 발생현황 ■

구 분	'02년	'10년			'14년	'14~'15년
		'10.1월(포천)	'10.4월(강화)	'10/'11년(안동)		
발 생	○ 5.2~6.23 (53일간) ○ 16건(소1, 돼지 15) ※ 2개도 4개 사군 - 경기 안성·용인·평택, 충북 진천	○ 1.2~1.29 (28일간) ○ 6건(소6) ※ 1개도 2개 사군 - 경기 포천연천	○ 4.8~5.6 (29일간) ○ 11건(소7, 돼지4) ※ 4개 시도 4개 사군 - 인천 강화, 경기 김포, 충북 충주, 충남 청양	○ '10.11.28~ '11.4.21(145일간) ○ 153건 (소97, 돼지55, 염소 1) ※ 11개 시도 75개 사군 - 부산 1, 대구 1, 인천 3, 울산 1, 대전 1, 경기 19, 강원 13, 충북 8, 충남 10, 경북 16, 경남 2	○ 7.23~8.6 (15일간) ○ 3건(돼지3) ※ 2개도 3개 사군 - 경북 의성, 고령, 경남 함천	○ '14.12.3.~ '15.4.28(147일간) ○ 185건 (돼지180, 소5) ※ 7개 시도, 33개 사군 - 인천2, 세종2, 경기56, 강원11, 충북36, 충남70, 경북8
혈청형	O형	A형	O형	O형	O형	O형
발생원인 (추 정)	○ 외국인 근로자 관리 소홀	○ 외국인 근로자 관리 소홀	○ 농장주 구제역 발생지역 여행	○ 농장주 구제역 발생지역 여행	○ 해외유입 (유입경로 미상)	○ 해외유입 (유입경로 미상)
방 역 조 치	○ 살처분 162농가 160,155두 * 소 1,372두, 돼지 158,708, 염소·사슴 75 ○ 예방접종 배제	○ 살처분 55농가, 5,956두 * 소 2,905두, 돼지 2,953, 염소·사슴 98 ○ 예방접종 배제	○ 살처분 395농가 49,874두 * 소 10,858두, 돼지 38,274, 염소·사슴 742 ○ 예방접종 배제	○ 살처분 6,241농가 3,479,962두 * 소 150,864두, 돼지 3,318,298, 염소·사슴 10,800 ○ 예방접종 실시 (전국 백신)	○ 살처분 3농가 2,009두 * 돼지2009 ○ 전국 예방접종	○ 살처분 196농가, 172,798두 * 돼지172,721 소70, 사슴7 ○ 전국 예방접종
국 내 종 식	○ 이동제한 해제(8.14) 후 ※ 청정국 회복 ('02.11.29)	○ 이동제한 해제(3.23) 후	○ 이동제한 해제(6.19일) 후 ※ 청정국 회복 ('10.9.27)	○ 최종발생일: '11.4.21(경북 영천) ※ 백신청정국 ('14.5.29)	○ 이동제한 해제(9.4) ※ 백신접종 중, 종식선언은 하지 않음	○ 이동제한 해제(5.22) ※ 백신접종 중, 종식선언은 하지 않음
재 정 소요액	○ 1,058억 원 - 보상금 531 - 구매, 소득 등	○ 272억 원 - 보상금 93 - 구매, 소득 등	○ 1,040억 원 - 보상금 637 - 구매, 소득 등	○ 27,383억 원 - 보상금 18,337 - 구매, 소득 등	○ 약7억 원 추정 - 보상금 5 - 소득 등 12	○ 638억 원(추정) - 보상금 454 - 생계소득추정 - 소득 등 165

정책브리핑 투자활성화 대책 - 농림어업 부문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6.02.17.)

☐ 개요

- [추진 배경] 글로벌 경제의 회복 지연, 최근 수출부진 심화 등으로 **성장고용 창출능력 둔화**
 -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소비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민간소비 개선 등 **경제 활성화 성과 가시화**
 - 가계소비와 재정여력의 한계 감안할 때 경제활력 회복과 고용창출여력 확충을 위한 **민간부문 투자활성화 필요**
- [추진 방향] 새로운 투자기회 발굴 +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즉시 투자창출이 가능한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 소득증가와 기술발전으로 생겨나는 **新서비스시장 육성**
 - 한-중FTA를 계기로 투자촉진을 통한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 글로벌 수준의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새만금 투자 촉진**

☐ 농림어업 부문 투자활성화 대책

- 농림수산 투자를 **정부지원 중심에서 민간투자 중심으로 유도**
 - (농업) 규제완화·인센티브·인프라가 갖춰진 **‘농업특화단지’** 조성하여 민간투자 유치하고, **농업의 대형화 추진**
 - (어업) 양식업의 대규모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진입규제 완화
 - (임업) 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 확대(산양삼: 10ha → 100ha) 등
- 농림어업의 **‘6차 산업화’** 추진
 - (판로) 공공조달·중기전용홈쇼핑의 **활용도 제고** ('16년 3분기)
 - ※ 유기농, 친환경수산물 등 우수농수산물 입점 확대 및 전용 판매타임 지정·운영
 - (융복합) 생산·판매·숙박·음식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농촌 융복합 시설제도 도입** (농촌융복합산업법 개정, '16년 4분기)

㉔ 정책브리핑

- **(어항개발)** 어항부지 매각을 민간투자자에게도 허용 (어촌어항법 개정, '17년), 공유수면에 수상(水上) 상업시설·레스토랑 설치 ('16년~)
- **(전통주)** 과잉규제 실태조사를 거쳐 **전통주 시설기준 완화** (현행식품기준 적용 + 일부 조례로 완화), **온라인 판매 허용범위 확대***
※ 우체국, 농협 등 → 중기전용 홈쇼핑, 나라장터 등
- **한-중 FTA를 활용하여 한국産 프리미엄 농수산물 수출상품화**
 - **(수출지원)** 수출 유망품목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하고 식품 클러스터 내 외투기업과 국내 식품기업간 **합작투자 등 매칭 지원** ('16~)
 - **(R&D-인력)** 신성장동력기술 R&D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스마트양식 등) ('16년 2사분기), 농수산대학 학과를 학부제로 개편 ('16년 4사분기)
 - **(유기농)** 유기농산물 재배매뉴얼 제작, 온라인쇼핑몰 입점 지원 ('16년 2사분기)
 - **(원산지 표시) 의무표시 수산물 확대**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개정, '16년 4사분기), 주요 한약재에 대한 자율표시 여건 조성
 - **(생산비용 경감)** 수산·축산·임업용 **국유재산의 대부요율 인하** ('16년 2사분기)
- **귀농여건 개선, 어업 진입장벽 해소하여 젊은 층 유입 촉진**
 - **(주택)** 귀농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 시 도시주택 **양도세 면제** (1가구 1주택 적용) 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조특법 개정, '16년 4사분기)
 - **(인프라)** 교육청 보유 폐교의 지자체 무상임대 요건 완화 → **폐교를 귀농·귀촌 센터로 활용** ('16년 3사분기)
 - **(어업 진입장벽)** 어선(선박+어업허가) 공개시장 조성 (어선법 개정, '16년 4사분기) 및 어촌계 설립요건 **완화**(수협 조합원 10인 이상 → 5인 이상,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16년 3사분기)

2016년 임산물 수출확대 계획

자료 : 산림청(2016.02.17.)

☐ 2016년 사업 추진 방향

〈중점 추진 방향〉

- '16년 임산물 수출목표 5억불 달성 -

- 임산물 수출기반구축을 강화하여 국내외 수출 위협요인 극복
 -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수출전문조직에 대한 체계적 지원
- 유망품목의 홍보·마케팅을 주력하여 중국·할랄시장 등 수출국 다변화
 - 수출잠재력이 높은 산양삼분재·조경수를 신규전략품목으로 선정 지원
 - 바이어 알선에서 수출까지 사업 연계 지원, 중국·할랄시장 타겟 마케팅
- 민·관 현장지원체계 구축 등 수출장애요인 발굴·해소
 - '임산물수출 OK 지원팀' 운영, 산림조합을 통한 수출 촉진

1. 임산물의 안정적 수출기반 구축 및 수출전략상품 개발

-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하여 안정적 수출기반 구축
 - 수출특화지역: 수출품 생산에서 수출에 이르기까지 일괄 지원하여 수출거점 육성, '16년 영동(표고), 부여(밤) 추가하여 총 5개 지역
- 수출상품의 고품질·균질성 유지를 위해 필요 장비 지원
- 중국 등 FTA에 대응한 고부가 수출전략 상품 R&D
 - 주요 임산물 수출전략상품 개발, 임산물 對중국 수출확대방안 및 마케팅 전략 연구 등

2. 수출협의회와 선도조직을 핵심수출경영체로 육성

- 품목별 수출협의회의 기능 강화하여 핵심 수출조직으로 육성
- 임산물 수출선도조직을 전문 수출경영체로 육성
 - 임산물 수출선도조직(2개)을 집중 육성하여 수출역량 강화
- 수출전문 인력 육성으로 수출역량 배양

㉔ 정책브리핑

3. 시장 다변화 및 유망품목 수출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 임산물 소비저변 확대 및 바이어 발굴을 위해 **신규유망시장 박람회 참가**
 - 할랄시장, 중국 등 신시장 박람회 참가하여 **임산물 홍보관 운영**
- **신규 유망품목 발굴**하여 시장진출 부담 경감을 통한 수출 촉진
 - 할랄시장, 중국 대상 신시장 개척에 따른 위험요인 감소 위해 **시험수출(마켓테스트) 지원**
-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안테나숍 운영**

4. 수출장애요인 해소와 수출확대에 유리한 여건 조성

- 유통비용 경감을 통한 수출활성화 위하여 **수출물류비 지원**
 - '15년 재정산된 표준물류비 적용하여 물류비 지원 현실화 등
- 수입국의 식품 안전기준에 대응하여 **수출품 안전성 관리 강화**
 - 수출품 생산이력관리, 밤 수출 검역비, 해외인증, 수출보험 지원 등

5. 민·관 수출협력체계 구축 및 수출현장 지원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강화**
 - 농식품부와 공동 홍보·마케팅 등 협업추진, 농식품수출개척협의회 통한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 강화
- 지방자치단체(산림부서, 수출유통부서)와 협조채널 구축
- aT, 산림조합, 임업진흥원, 생산자 간 상시 공조시스템 운영
 - '임산물수출 OK 지원팀' 운영, 수출현장 컨설팅 및 수출유망품목 발굴
 - ※ 산림청, aT, 산림조합, 임업진흥원, 지자체 등 유관기관·단체 전문가 pool 운영
- 임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민·관 소통강화 및 사업품질 향상 추진**
 - 주력수출품목 및 신규유망품목별 생산자 및 수출업체와의 수출확대 간담회 개최 등 현장 소통강화 등

연구지원 2015년 말산업 실태조사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02.12.)

□ 개요

- [농식품부, 2015년 말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2.12.] 말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말산업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고 말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말산업 사업체, 말자원, 일반국민
 - (기준시점 및 조사기간) △기준시점: 2015.10.1., △조사기간: 2015.08.29.~10.16.

□ 주요내용

- 말산업 육성 정책 등으로 주요 지표 전반적으로 성장 추세 유지
 - (말 사육두수) 26,330두...전년 대비 511두(2.0%) ↑
 - ※ (용도) 승용 9,471두(36.0%), 경주용 9,160두(34.8%), 번식용 4,699두(17.8%), 육용 852두(3.2%) 등
 - ※ (품종) 더러브렛 12,044두(45.7%), 제주마 2,404두(9.1%), 워블러드 713두(2.7%), 포니 324두(1.2%), 미니어처 222두(0.8%) 등
 - (말산업 규모) '14년 말 기준 3조 2,303억 원...'13년 말 기준 대비 209억 원(0.7%) ↑
 - (말산업 사업체수) 2,052개소...전년 대비 53개소(2.7%) ↑
 - (승마 시설수) 457개소...전년 대비 62개소(15.7%) ↑
 - (정기 승마인구수) 42,974명...전년 대비 2,378명(5.9%) ↑
 - (체험 승마인구수) 830,406명...전년 대비 59,330명(7.7%) ↑
 - (말산업 종사자수) 15,845명...전년 대비 246명(1.5%) ↓
 - ※ (경마사업) '14년 대비 334명(3.4%) 감소한 9,635명
 - ※ (말산업) '14년 대비 88명(1.4%) 증가한 6,210명

말산업 실태

구 분		'15년도(A)	'14년도(B)	증감률		비 고 ('13년도)
				(A-B)	(A/B)	
말 산 업 사 업 체 수	말보유 사업체	1,829개소 (개인 606명)	1,808개소 (개인 590명)	21개소 (개인 16명)	1.2%	1,608개소 (개인 319명)
	말미보유 사업체	223개소	191개소	32개소	16.8%	216개소
	소 계	2,052개소	1,999개소	53개소	2.7%	1,824개소
말사육두수		26,330두	25,819두	511두	2.0%	24,467두
승 마 시 설 수	체육시설	184개소	190개소	-6개소	-3.2%	157개소
	농어촌형	124개소	109개소	15개소	13.8%	86개소
	미신고	149개소	96개소	53개소	55.2%	88개소
	소 계	457개소	395개소	62개소	15.7%	331개소
승 마 인 구 수	정기 승마	42,974명	40,596명	2,378명	5.9%	38,867명
	체험 승마	830,406명	771,076명	59,330명	7.7%	739,449명
종 사 자 수	경마사업	9,635명	9,969명	-334명	-3.4%	10,031명
	말산업	6,210명	6,122명	88명	1.4%	5,380명
	소 계	15,845명	16,091명	-246명	-1.5%	15,411명
말산업규모		3조 2,303억 원 ('14년 말 기준)	3조 2,094억 원 ('13년 말 기준)	209억 원	0.7%	3조 1,399억 원 ('12년 말 기준)
일반국민 승마 참여율		10.1%	9.9%	0.2%p	2.0%	8.3%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대외협력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